

건설업계소식

2006 건설협력증진대상 시상식 개최



일간 건설신문사와 건설의주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설비건설협회, 건설교통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등 11개 단체가 후원한 「2006 건설협력증진대상」 시상식이 지난 해 11월 28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을 비롯, 서중대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장,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권홍사 「일간건설신문」 발행인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원사업자와 협력사 간의 상생이 기업경영의 핵심화두로 부각되고 있다”며 “건설업은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종합협동예술인 만큼 어떤 산

업 보다 상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2회를 맞은 건설협력증진대상은 건설업계에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관계를 구축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기업들을 독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특히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업역다툼 등으로 인해 손상됐던 건설산업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설인들을 하나로 묶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의 최고 권위있는 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건설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10개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건설업계소식



▲ 박종학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과 내빈들이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표창 3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표창 4개, 개인공로상 3개 그리고 대상 1개 등 총 21개의 상이 수여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로는 백종운 윤창기공(주) 대표이사가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 수상 내역

부문	성명	회사명	직위	비고
건설교통부장관표창	백종운	윤창기공(주)	대표이사	대한설비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대의원

영광의 설비건설인 - 수상자 인터뷰

건설교통부장관표창

윤창기공(주) 백종운 대표이사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 온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윤창기공(주) 백종운 대표이사는 수상소감을 간략하게 밝혔다. “현장에 있는 기능공들이 대부분 교육적, 경제적으로 소외받은 사람”

이라며 “우리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어깨 펴고 대접받는 일꾼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 백종운 대표에게서 일용직 기능공에 대한 관심이 읽혀졌다.

윤창기공(주)의 경영이념은 「인간적인 회사」, 「능력있는 회사」, 「봉사하는 회사」이다.

백종운 대표는 「인간적인 회사」를 만들기 위해 일

용직 근로자들의 애경사를 빠짐없이 챙기고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 반장급 기능직들은 회사 자체 교육에 참가시켜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기능인의 능력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능력이 있어야 많이 배풀 수 있고, 기능공들을 잘 대우해야 능력있는 회사가 될 수 있다”는 백종운 대표이사의 말이 두 번째 경영이념인 「능력있는 회사」를 대변해 주고 있다.

윤창기공(주)은 2년 전부터 기금을 축적해 독거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돕고 있으며 앞으로 봉사활동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봉사하는 회사」의 경영이념을 실천하는 대목을 엿보게 한다.

협력업체와 일용직근로자 모두에게 따뜻한 인간적인 회사.

이런 회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백종운 대표는 오늘도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